

敎養 放送 프로그램 解說의 焦點과 抑揚

김 현 *

I. 序 論

抑揚(intonation)은 문장의 統辭的 構造에 따라 잉여적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話用的 · 意味的 脈絡을 타고 화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態度가 억양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情報의 輕重이 억양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억양은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나 단락 나아가 텍스트 전체에서 핵심적이라고 여기는 부분, 즉 焦點(focus)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국어의 焦點과 抑揚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 자료가 어떤 한 문장을 被驗者에게 읽게 하되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여기고 읽게 하여 녹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의 兩方向的 對話에 가까운 자료를 얻기 위한 실험 설정이라 여겨진다. 반면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의 解說(narration)로서 대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一方向的 텍스트이다.¹⁾

* 서울대 강사

1) 실험에 의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음질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배경 음향 · 음악이 종종 해설과 섞이어 제대로 Fo값이 측정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해설의 억양 일반에 관하여서는 뉴스를 대상으로 한 김경화(1999)를 참고할 수 있다. 낭독체의 억양 특성을 알 수 있는 성철재(1998)도 참고가 된다.

교양 프로그램의 해설은 전체의 大主題를 유지하면서도 부분별로는 小主題로 뻗어가다가도 대주제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등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내용적으로 긴밀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焦點 역시 단순히 문장 혹은 문답을 이루는 두 문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대주제와 소주제를 고려하면서 단락이나 프로그램 전체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설은 완전히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聽者의 반응을 확인해 가면서 이해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초점 부분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畫面이나 音響 效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지만, 解說의 抑揚 역시 이들과는 별도로 초점을 드러내게 된다.

본고는 1999년 10월 9일에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송된 『역사스페셜』 42회인 〈한글은 집현전에서 만들지 않았다〉의 해설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약 60분 분량의 이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1. 도입 | 4. 창체의 동기 |
| 2. 단독 창체의 근거 | 5. 신하들의 반대 |
| 2.1 당시의 정황 | 6. 한글의 기원 |
| 2.1.1 원로 학자의 상소 | 7. 제자 원리 |
| 2.1.2 소장 학자의 활동 시기 | 8. 마무리 |
| 2.2 명시적 기록 | |
| 2.3 세종의 언어학적 소양 | |
| 3. 직계 가족의 도움 | |
| 3.1 정의공주 | |
| 3.2 왕자들 | |

導入部는 한글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共同作이라는 통념을 언급한 해설과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그 다음 비로소 프로그램의 제목이 나오고 진행자의 설명이 이어진다. 진행자의 설명은 한글 반포에 반대하는 上疏를 올린 것이 집현전 학자였다는 내용이다.

본론에서는 해설과 인터뷰, 짧은 劇, 진행자의 설명 등을 적절히 섞어 가

며 논의를 펴 나가고 있다. 먼저 집현전의 元老 學者가 反對 上疏를 올렸다는 점을 들고, 少壯 學者들은 활동의 時期가 한글 창제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한글 창제가 집현전 학자들과 무관함을 논하고 있다. 나아가 몇몇 文獻에 직접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였음을 밝힌 記錄이 남아 있음도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세종이 뛰어난 언어학자였으며,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의 명령에 따라 해설서를 만들었을 뿐이라 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貞懿公主, 文宗과 大君들이 한글 창제 및 관련 사업에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정의공주가 출가한 竹山 安氏의 족보, 성삼문이 쓴 『直解童子習』의 서문 등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까지만이 이 프로그램의 主題文이라 할 ‘한글은 집현전에서 만들지 않았다’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한글 창제의 動機나 한글의 起源, 制字 原理 등에 관한 것으로 한글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전달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창제의 동기를 『三綱行實圖』의 간행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든가, 결론을 내지 못한 ‘字倣古篆’ 云云은 설명에 대한 객관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II. 小結 段落의 焦點 實現

다음은 도입부에 등장하는 해설이다.

- (1) ① 한글이 반포된 지 올해로 553번째 해를 맞았다. ② 우리 민족의 문자, 한글. ③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④ 현재 대부분의 책이나 교과서에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적고 있다. 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은 정확한 것일까?

問題를 提起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훈민정음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共同으로 만들어졌다는 通念을 밝히고 있는 문④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상반된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장의 주요 Fo값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수치의 단위는 Hz이다.²⁾

(1') ¹¹⁴ 현재 대부분의 책이나 ¹²³ 교과서엔 훈민정음의 창제는 ⁹⁶ ¹¹³ ¹³⁷ 세종과 ⁹¹ ¹⁰⁹ 집현전 학자들 ¹²⁷
¹³⁵ 이 ¹²⁶ 공동으로 ⁹⁸ 만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문장은 休止를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책이나 교과서엔’, ‘훈민정음의 창제는’과 그 이하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³⁾ 각각의 억양구는 上昇과 下降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頂點은 각각 123Hz, 137Hz, 135Hz로 실현되고 있다. 뒤에서 다루게 될 문장들에 비하면 이러한 數值는 그 부분이 돋들렸다고 하기에는 매우 낮은 셈인데, 이는 이 부분이 本格的인 論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導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가장 높이 실현된 부분은 ‘훈민정음’과 ‘공동으로’이지만, 休止의 길이를 염두에 둔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焦點을 두어 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의 앞뒤에는 각각 0.43초, 0.79초의 휴지가 놓여 있는데, 한 문장 내의 0.79초라는 휴지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도 몇 차례 나오지 않을 만큼 긴 것이다. 초점이 놓인 단어의 바로 앞 음절이 길게 발음된다는 전은주(1990:25)의 논의를 확대하여 적용하면 (1')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긴 休止 뒤에서 高調로 실현된 ‘공동으로’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전체의 주제인 ‘세종의 단독 창제’에 正反對가 되는 核性的 單語인 ‘공동’이 가장 돋들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부분의 소결 단락이다.

(2) ①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② 오히려 원로 학자들은 한글 창제 자체를 반대했고, 젊은 학자들도 한글 서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이다. ③ 결국 세종 25년에 만들어진 한글 스물 여덟자는 그들의 공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프로그램 解說의 전반적인 피치는 口語에서보다 낮다. 이는 낭독체보다 대화체가 약 14.3% 정도 높게 발음된다는 성철재(1998:84)의 실험 결과로 보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3) 抑揚句는 그 마지막 음절이 길게 발음되어 경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현복 1974:18), 여기서는 마지막 음절이 발음된 후의 休止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①은 결론인 문③의 根據를一般的인陳述로 서술하였으며, 이 일반적 진술은 문②에서 '원로 학자'와 '젊은 학자'로 具體化되어 있다. 문①②는 근 거이고 문③은 그 結論인 셈이다. 세 문장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문①에서 '집현전 학자들', 문②에서 '원로 학자들'과 '젊은 학자들', 문③에서는 '그들'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의 문장에서 가장 높은 피치로 실현되었다.

- (2') ㄱ.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125 136 130}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ㄴ. 오히려 원로 학자들은 한글 창제 자체를 반대했고,
 ㄷ. 결국 세종 25년에 만들어진 한글 스물 여덟자는 그들의 ¹³⁸ 공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¹⁴⁶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집현전 학자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단지 그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할 때에 (2' ㄴ)의 焦點은 '한글 창제 자체를 반대'와 '한글 서적을 만드는 데'에 있다기보다, 그 앞의 주어인 '원로 학자들'과 '젊은 학자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高調로 실현된 이들을 대용어로 받은 (2' ㄷ)의 '그들의' 역시 高調로 실현되었다.

다음은 세종이 한글을 단독으로 창제할 수 있을 만큼 언어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내용의 소결 부분이다.

- (3) 세종대에 이뤄진 한글 관련 사업의 최고 책임자,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세종 자신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것은'까지가 이 문장의 主題部이며, 그 이하가 述語部인데, 그 사이에 0.6초 정도의 짧은 휴지가 놓여 있다. 주제부의 '한글 관련' 부분이 137Hz의 고조로 실현되지만, 술어부의 頂點을 이루는 156Hz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 할 것이다.

130 148 156 146 134 115 101
 (3') 바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세종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술어부는 繫辭 앞의 名詞句인 ‘세종 자신’ 및 이를 수식하는 冠形節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사적으로는 ‘자신’이 명사구의 核이겠지만, 피치는 오히려 관형절에서 가장 높게 실현되었다. 한글의 창제자가 세종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몇몇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세종 자신’은 新情報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새로이 提示된根據가 세종이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다는 점이기 때문에 焦點이 놓이고 高調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直系 家族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에 이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動機를 추측한 내용을 마무리짓는 문장이다.

(4) 한글 창제는 세종이 신하들 몰래 자식들을 데리고 십여년 간을 추진해 온 비밀스런 연구의 결과인 것이다.

서술부의 명사구 ‘연구’는 두 관형절 ‘세종이 ~ 추진해 온’과 ‘비밀스런’의 수식을 받는다. 전자의 관형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하나는 ‘자식들을 데리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십여년 간을 추진’이라 할 것이다. 후자의 ‘비밀스런’은 앞선 ‘신하들 몰래’와 意味的으로相通하는데, 이전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운 情報를 주지는 못한다. 반면 ‘자식들을 데리고’는 세자와 대군들 및 정의공주가 한글 창제 및 관련 사업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십여년 간을 추진’은 세종이 문자 창제의 필요를 느낀 『三綱行實圖』를 간행할 즈음부터 창제까지의 기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6 102 88 154 155 144 112 95
 (4') 자식들을 데리고 십여년 간을 추진해

앞부분은 억양상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뒷부분은 155Hz에 이

르는 高調로 실현됨과 아울러 ‘십여년 간을’과 ‘추진해’ 사이에서 피치의 落差가 매우 크게 실현되고 있다. 또한 ‘데리고’와 ‘십여년’ 사이의 휴지도 0.6 초로서 꽤 길게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의 대등한 내용을 정리하였음에도 후자에만 焦點을 둔 듯한 억양이 실현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앞의 내용에 비해 뒤의 내용을 중시한 결과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종이 집 현전 학자의 도움 없이 가족의 도움만으로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앞의 내용이 프로그램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또한 ‘십여년 간을 추진’ 하였다는 언급이 그대로 세종의 한글의 創製 動機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음은 事大主義의 思考에서 비롯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이 한글을 반포하였다는 내용의 소결 단락이다.

- (5) ① 한글 창제 전에 이 사실이 신하들에게 알려졌다면 한글은 탄생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② 당시의 명분에는 어긋나는 한글 창제. ③ 한글은 세종이 신하들을 따돌리는 비밀작업으로 마침내 이루어낸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문①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과는 다른 假定을 통해 소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②는 당시의 사회적 논리를 대변한 신하들의 입장과 세종의 입장이 달랐음을 말하는 문장으로서 본론의 주제에 補助的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문③은 문①과는 달리 直說的으로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 (5') 107 117 148 132 109 110 131 113 95
 한글은 세종이 신하들을 따돌리는 비밀작업으로 마침내 이루어낸 거대한
 123 139 146
비밀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이 문장은 앞부분의 ‘신하들을 따돌리는’과 뒷부분의 ‘비밀 프로젝트’가 高調로 실현되었는데, 초점이 억양을 통해 잘 드러난 예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 둘은 의미적으로 상통할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돋돌리지 않은 ‘비밀작

업’ 역시 의미상으로는 이들과 대등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청자에게 익숙한 ‘비밀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高調로 실현하여 관심을 끌려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따름이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 (6) 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자의 사치, 그것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언어학자 세종의 외로운 노력이 가져다 준 고귀한 선물이다. ②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비록 오랑캐가 된다 하더라도 백성이 글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의지. ③ 한글 창제는 극소수 양반층만 누리던 문자의 특권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준 세종의 거룩한 문자 혁명이었다.

문①의 ‘세종의 외로운 노력’이 프로그램 전체의 主題가 集約된 부분이 아닐까 한다. 문②③은 문①의 ‘고귀한 선물’을 부연한 내용이라 여겨지는데,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을지라도 프로그램 마지막에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백성이 글을 알아야 한다’거나 ‘문자의 특권을 모든 백성에게’ 준다거나 ‘거룩’하다거나 하는 표현을 통해 세종의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문②③에서도 이를 표현에 대해서는 고조의 억양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주제를 직접 드러낸 문①의 억양만을 살피면 다음과 같이 ‘천재 언어학자’와 ‘외로운 노력’이 高調로 돋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5 141 132 138 142 128 109 122 149 143 124 113
 (6) 그것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언어학자 세종의 외로운 노력이 가져다 준
 106 78 77
 고귀한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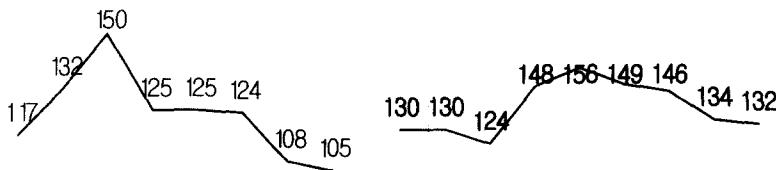
III. 抑揚에 의한 焦點의 實現 樣相

1. 高調에 의한 焦點 實現

앞선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점은 대부분 高調로 돌들린다. 焦點을 실현하는 高調는 頂點에 다다르기까지의 피치의 傾斜가 완만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레 높아져 선행 음절과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고조는 대체로 145Hz 이상으로 실현되지만, 130Hz대라고 하여도 선행 음절을 매우 낮게 발음하여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緩慢한 上昇

- (7) 그. 훈민정음의 창제는 당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 그 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세종 자신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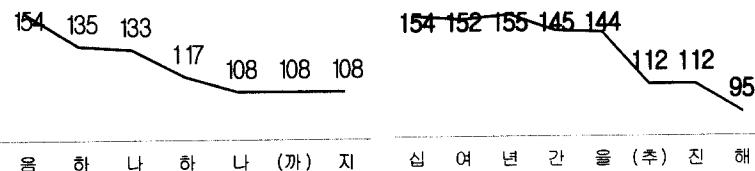
당 시 큰 (파) 문 을 불 려 (바) 로 당 대 최 고 의 언 어

(7-ㄱ)의 '창제는'은 97Hz로 끝맺으며 (7-ㄴ)의 '그것은'은 99Hz로 끝맺는다.⁴⁾ (7-ㄱ)은 頂點인 '큰' 앞의 '당시'가 약간 높게 실현됨으로써 그다지 완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급하지는 않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7-ㄴ)은 '바로'가 선행 음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정점인 '최'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高調는 대체로 이와 같은 유형을 보인다.

4) 그래프에서 팔호에 묶인 것은 無聲音으로 발음되어 Fo값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그 다음 음절과 같은 높이로 들리기는 한다.

急한 上昇 1 (絕對的 高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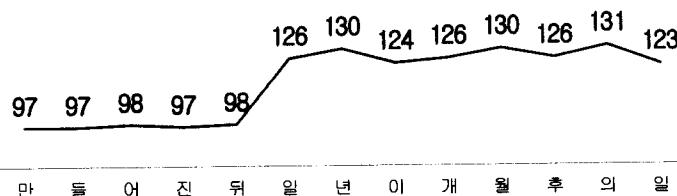
- (8ㄱ) 실무자였던 신숙주가 쓴 서문에 따르면 음 하나하나까지 모두 왕에게 직접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 (8ㄴ) 한글 창제는 세종이 신하들 몰래 자식들을 데리고 십여년간을 추진해 온 비밀스런 연구의 결과인 것이다.



(8ㄱ)의 '따르면'은 97Hz로 끝맺으며, (8ㄴ)의 '데리고'는 88Hz로 끝맺는다. (8)에서 돋돌린 '음'이나 '십'은 절대적으로는 앞선 (7)과 비슷하게 150Hz 대의 高調이기는 하지만 억양구의 맨 앞에 음으로써 先行 音節의 피치와 큰 간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8ㄱ)은 정점 직후 완만한 下降을 보이는 데에 반해 (8ㄴ)은 다섯 음절 정도 高調가 維持된 후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給한 上昇 2 (相對的 高調)

- (9) 신숙주가 최초로 요동에 간 것은 1447년 1월. 한글이 만들어진 뒤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이 문장은 신숙주가 요동에 간 것이 한글 창제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1년 2개월 후'가 焦點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초점 부분을 약간만 높여서 지속하고 그 앞의 성분을 약간 낮춤으로써 높낮이의 幅을 이용하여 초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초점

실현은 후술할 (13)의 ‘바로’, (14)의 ‘그러나’와 비슷하기는 하나, 프로그램 내에서 자주 들리는 편은 아니다.

2. 低調에 의한 焦點 實現

초점은 高調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低調를 통하여 돋들리기도 한다.

- (10) ㄱ. 126 127 88 86 84 114 125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와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이 그들이다.
 ㄴ. 113 128 131 99 97
 세종 스스로 한글을 만든 것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0-1)은 한글 관련 사업에 왕자들이 참여했다는 내용의 서두 부분에서 사업에 참여한 왕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힌 문장이다. 따라서 基本的인 焦點은 ‘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에 놓일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것도 高調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세자’만이 低調로 실현되었고, 나머지 둘은 별다른 억양적 특징을 띠지 않아 ‘세자’만이 돋들린 것으로 이해된다.⁵⁾ 이는 아마도 (10-1)에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直解童子習』의 서문에 세종과 文宗이 함께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왕자들 중에서도 ‘세자’가 한글 관련 사업 특히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하였으리라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자’가 상대적으로 돋들리지 않았나 한다.⁶⁾

5) ‘세자’를 수식하는 ‘문종이 되는’ 역시 새로운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내용 전개상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

6) 이와 같이 대등하게 열거된 사항들 중 후속되는 내용에 주된 역할을 하는 사항이 돋들리는 예를 또 찾을 수 있다. “한글 창제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자는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등 모두 일곱 사람이다. … 집현전 7학사 중에서도 한글 창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학자는 신숙주다. … 신숙주는 외국어에도 능통 했다고 알려져 있다. …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에는 … 한글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적고 있다. … 신숙주가 황찬을 만난 것은 훈민정음 창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에서 첫 문장의 ‘정인지’는 113Hz, ‘최항’은 116Hz, ‘성삼문’은 106Hz로 실현되지만 ‘신숙주’는 132Hz로 약간

(10ㄱ)은 『訓民正音』의 ‘내 이를 위호야 … 링그노니’에서 세종이 스스로 單獨 創製임을 밝혔음을 근거로 제시한 문장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가장 焦點이 되는 것은 ‘자신임을’이라고 할 것이다. ‘자신’은 無聲音으로 실현되어 Fo값을 알 수 없지만 ‘임을’과 비슷한 높이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低調에 의해 초점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ㄱ)의 ‘세자’보다는 약간 수치가 높지만 역시 低調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과 같이 초점이 저조로 실현될 때에는 거의 대부분 피치의 落差가 크다. (10ㄱ)이나 (10ㄴ) 모두 약 30Hz 정도의 落幅을 보이는바, 앞서 살핀 고조가 완만한 것과 급한 것이 있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다시 말해 低調의 본질은 단지 소리가 낮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ㄱ. 이렇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는 내용과 함께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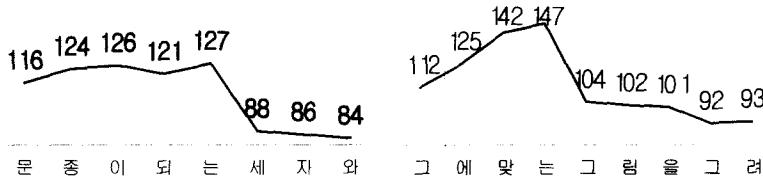
ㄴ. 성삼문은 이 글에서 한글을 만든 것이 세종과 문종이라고 적고 있다.

(11ㄱ)은 세종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三綱行實圖』에 삽화를 그려 넣었다는 내용으로서 ‘그림’에 초점이 놓이게 된다. (11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자가 한글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세종과 문종’에 초점이 놓이게 된다. 이들은 絶對的인 數值로 보아서는 (10)의 ‘세자’나 ‘자신’보다 높기는 하지만 선행 음절과의 피치의 낙차가 30Hz 이상이 되어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10ㄱ)과 (11ㄱ)의 피치 변화는 다음과 같다.

急한 下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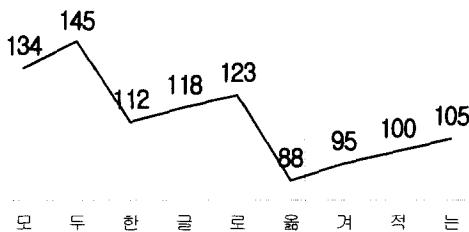
(10ㄱ)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와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이 그들이다.

(11ㄱ) 이렇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는 내용과 함께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다음의 예문 역시 30Hz 이상의 落幅을 두고 低調가 실현되기는 하지만 앞선 (10, 11)과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12) 이것은 방대한 분량의 중국음을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 일이었다.



이는 『東國正韻』의 編纂을 간략히 소개한 것인데, 焦點이 低調로 실현된 ‘한글’ 혹은 ‘옮겨’에만 놓여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예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漢字音의 하나하나까지 세종의 裁可를 받았으며 그만큼 세종이 言語學의 으로 뛰어났다는 것인바, 수많은 한자음들에 일일히 세종의 허락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에 焦點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초점이 없는 中立的인 文章이라고 보기에는 억양이 특이한 편이다. 물론 口語에서는 억양구의 끝을 약간 올리는 성향(윤일승 1992)이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解說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며 설사 그런 문장이 있더라도 피치의 落幅이 이와 같이 크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2)는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 전체에 초점이 놓이 되 焦點 内部에서 피치의 落差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초점이 되는 명사구를 특별히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그 앞에 低調의 ‘바로’를 삽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초점을 돌돌리게 하기도

한다.⁷⁾

- (13) ㄱ. 한글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이 동원된 사람이 바로 신숙주였기 때문이다.
- ㄴ. 이것은 음운학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바로 세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ㄷ. …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로 세종의 둘째딸인 정의공주와 관련된 것이었다.
- ㄹ. 그러나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삼강 행실도다.

(13ㄱ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신숙주'나 '세종'은 특별히 高調나 低調로 실현되지 않고 그 앞의 '바로'가 89Hz의 低調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ㄷ)은 '바로'가 文頭에 놓인 경우인데, 이 때문에 (13ㄱㄴ)에 비해 약간 높게 실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⁸⁾ 또한 '바로'의 수식을 받는 성분이 명사가 아니라 名詞句이며, 그 명사구의 초점인 '정의공주'가 '바로'의 바로 다음에 있지 않다는 점도 관련될 수 있다. (13ㄹ)은 '바로'는 절대적인 低調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행 음절의 피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相對的으로 低調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ㄱㄴ)은 '바로'의 선행 성분의 피치가 下降中에 있었다면 (13ㄹ)은 上昇中에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바로'를 낮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가 언제나 이와 같이 저조로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 (14) ㄱ. 그렇다면 바로 이들이 세종을 도와 한글 자모 스물여덟자를 만들 때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ㄴ. … 한글 관련 사업의 최고 책임자,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세종 자신이었던 것이다.

7) 앞선 (9)는 바로 이어지는 초점 부분을 약간이나마 높였다는 점에서 이 경우와 차 이를 보인다.

8) 이 프로그램의 해설에서 文頭의 Fo값은 일반적으로 110Hz 전후이다.

(14)의 ‘바로’는 각각 120Hz, 130Hz로 실현되어 앞선 (13)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14ㄱ)은 뒤이어지는 ‘이들’이 특별히 초점을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저조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3)에서 ‘바로’가 低調로 실현된 것이 焦點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14ㄴ)은 초점이 ‘당대 최고’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7ㄴ)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치가 완만히 상승하는 단계에 ‘바로’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⁹⁾

이 밖에 접속사 중 ‘그러나’도 대체로 低調로 나타난다. ‘그러나’는 모두 9 차례 나오는데 그 중 6번은 95Hz 이하로 실현되었다.¹⁰⁾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신숙주가 황찬을 만난 것은 훈민정음 창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
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⁷⁸

이처럼 ‘그러나’가 저조로 실현되는 것은 앞서 ‘바로’가 저조로 실현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¹⁾ ‘그러나’는 단순히 앞문장과 뒷문장이 逆接의 關係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앞세움으로써 뒷문장의 内容을 浮刻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焦點의 直前 成分을 低調로 실현시킨 것이라 여길 수가 있는 것이다.

9) ‘바로’ 뒤의 休止를 보면 (13)의 (ㄱ)은 0.42초, (ㄴ)은 0.17초, (ㄷ)은 0.61초, (ㄹ)은 0.47초로서 (ㄴ)을 제외하고는 꽤 같다. 반면 (14)는 (ㄱ)의 경우 휴지가 전혀 없으며 (ㄴ)은 0.16초의 간격이 있다.

10) ‘그러나’의 제1음절은 거의 대부분 무성음으로 실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음절 까지 무성음으로 실현되어 높낮이를 알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마지막 음절의 높낮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1) 그런데, 그리고’ 등에서도 低調를 들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와 같이 다수가 저조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는 8번 중 2차례 저조로 실현되었으며, ‘그리고’는 3번 중 1차례가 약간 낮게 실현되었을 뿐이다. 저조로 실현된 ‘그런데’ 중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싸고 떠도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 중 믿을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런데 한 가문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의 ‘그런데’는 ‘그러나’로 바꾸어도 무방할 듯하다.

IV. 結 論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誤用事例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規範言語學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제2언어 혹은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誤謬 分析에만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中間言語(interlanguage)의 記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이나 인터넷의 언어에 대한 접근도 正誤를 떠나서 記述言語學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상적인 대화와는 달리 敎養 프로그램의 解說은 정보를一方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설명 또는 논증을 위하여 音聲的 道具를 이용한 초점의 돋들림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해설에서의 焦點 역시 일상적인 대화에서와는 달리 프로그램의 大主題나 小主題와 관련하여 고려될 성질의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해설에서 초점을 돋들리게 한 억양은 다음과 같다.

高調	緩慢한 上昇	絕對的 高調
	急한 上昇	相對的 高調
低調(急한 下降)		

초점은 高調로 돋들릴 수도 있고 低調로 돋들릴 수도 있다. 高調는 일반적으로 억양구의 시작으로부터 緩慢한 上昇을 보이지만, 때로는 急하게 실현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초점 부분을 약간만 높이고 선행 부분을 낮춤으로써 피치의 幅을 이용하기도 한다. 低調는 본질적으로 피치의 落差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초점이 명사구에 있는 경우, 이 성분은 그대로 둔 채 저조의 '바로'를 앞세움으로써 초점을 돋들리게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김경화(1999), 「방송문장의 억양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언어연구』 19.
- 김선철(1997), 「국어 억양의 음성학·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철재(1998), 「한국어 대화체 음성의 운율 분석」, 『한글』 239.
- 윤일승(1992), 「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특징」, 『언어연구』 5.
- 이숙향(1984), 「한국어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길(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길(1999), 「억양과 초점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말소리』 38.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 전은주(1990), 「한국어 ‘초점’(focus)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근(1992), 「방송언어에 나타난 음운현상 실태 연구」, 『대구어문논총』 10.